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하느님은 비뚤어진 선일지라도 똑바로 쓰십니다

“예를 들면, 종이 위에 글을 쓰기 위한 선들이 아무리 비뚤게 그어져 있더라도, 하느님은 그 잘못된 선들에 상관 없이 똑바로 글을 쓰십니다.” - 예수의 성녀 데레사 -

코로나19로 인해 칠레에서 휴가를 마치고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브라질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에 제 마음은 혼란과 당혹감을 느꼈고 마침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가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불편한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멀어지는 것 같음에 어떤 때는 답답한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비록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믿으며 언젠가 곧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봅니다.

코로나19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탄력성”과 “조화”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의 탄력성을 지니고 조화를 운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 마음의 작업 3가지 -

1. “내 입장에 먼저 서기”

- | | |
|---|---|
| <input type="checkbox"/> 겪은 억울함, 두려움, 약, 분노, 슬픔, 외로움 등 바라보기 | <input type="checkbox"/> 피해 행동 기억하기(진실을 바라보기) |
| <input type="checkbox"/> 가해 행동 기억하기(진실을 바라보기) | <input type="checkbox"/> 가해자를 용서하기 |
|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용서하기 |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연민을 베풀기 |

2.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

상대방과의 유사한 체험을 기억해 본다면 즉, 나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해되지 않던 그가 어느 순간에 ‘아!’하고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탈출기 3장 5절의 말씀처럼요.

제가 지금 머무는 브라질 공동체에 할머니 수녀님 한 분은 한쪽 다리를 저는데, 제가 아픈 다리 쪽에 목발이 되어 드리면 참 좋아하세요. 다리가 덜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만약 상대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그의 장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의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입장에 선다는 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이처럼 그의 입장에 서게 될수록 서로 평온하고 힐링 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나에게든 상대에게든 자비, 용서, 인내심, 공감, 사랑, 따뜻함, 연민은 누구에게나 조건이 없는 선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시편46, 11)

하진숙 만나_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2년 전 가을, 봉사자 교육 기간 교정시설 참관 때 서울남부교도소 남사에 방문하게 되었다. 큰 강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많은 형제님이 앉아계셨고 교도관님들이 중간중간 앉아 계셨다. 수용자들이 제대를 차리고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서울남부구치소 여사로 배정을 받아 봉사를 다니고 있다.

여사는 남사와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다.

30~40여 명이 교실만 한 공간에서 가까이 앉아 미사를 드리는 모습에 놀라고 약간 두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금방 깨달았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마태25,36)"는 말씀을 늦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갔던 것을... 평화의 인사 때에 그들과 악수를 하며 지내다 보니, 어린 자매를 보면 마음이 찢아지면서도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나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이 나오실 때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어떤 자매님들의 형량을 들으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번에 올 때는 한명이라도 더 출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헤어지곤 한다.

날이 추워져 난방할 때면 춥지 않을까 염려되었고 더우면 더워서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구치소 내에서 바라본 하늘은 밖보다 훨씬 하늘이 맑게 보였다. 맑으면 맑아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다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종교실로 들어갔다.

세례식 때 새롭게 살아가기로 한 대녀들이 세례 후에는 바로 이감되어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아쉬웠다. 간혹 미사가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한데 그러면 세례를 받자마자 영성체를 못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겨울방학을 하면서 봄에 만나자고 3월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전 세계가 꿈쩍 못 하는 상황들이 지속하고 우리가 언제 그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염려하며 기도하고 기다린다.

나는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나의 욕구들을 채우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가족의 장례식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상도 못 한 상황들 앞에서 생각한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감옥에 있지 않아도 너희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다. 욕구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새롭게 불러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다. 이기적으로 탐욕을 부리며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우리나라가 타의 모범이 된 것은 공동체 정신이다. 공동체 정신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일치하여, 방역에 성공하고, 코로나19 백신도 개발되어서, 마스크 없이 우리 자매님들을 만나는 날을 오늘도 기다리며 기도한다.



르우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가 첫아기를 품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게다가 농업과 목축업 근간의 고대 근동에서는 남성 노동력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성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구절,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듯이 남성 중심으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기에 첫아기를 아들로 나았다는 레아의 자부심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아꼈는지, 어머니에게 임신촉진제로 쓰였던 합환채를 선물합니다. 이 합환채는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밀을 거두어들일 때”(창세 30,14) 르우벤이 이 합환채를 드렸다고 하는데, 합환채는 이 시기에는 잎이 시들고 열매도 말라버려 더 찾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삼과 같이 뿌리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성인들도 모종삽을 이용해야 겨우 뽑을 수 있는 이 합환채를 10대의 어린 르우벤이 가져온 것입니다. 효성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레아와 라헬의 ‘아이 낳기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질투와 욕심, 경쟁심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 같아 씁쓸합니다.

자아에 대한 강한 집착, 자기 공동체에 대한 강한 결속은 상대방과 지나친 경쟁이 되고,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 혐오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폭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빌하에게 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알게 되었다(창세 35,22).

이 사건은 라헬의 죽음(창세 35,16-20) 뒤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레아와 라헬이 남편 이스라엘을 두고 경쟁을 하다 라헬이 죽었으니, 당연히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이스라엘의 아내 자리를 차지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몸종”이 “아버지의 소실”이 되어서 자신의 어머니가 차지해야 할 곳을 차지했다고 분노하고, 르우벤은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폭력은, 대부분 폭력이 그러하듯이,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모이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가 꿈쩍이 아끼는 레아에게는 어머니의 설움에 대해 토로하거나 항의하지 않다가, 몸종

이었고, 특별히 아버지가 신경을 안 쓰는 듯 보이는 빌하에게 르우벤은 이런 폭행을 가합니다. 역시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알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제재나 질책, 심지어 죽기 전 축복 때까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르우벤의 범죄는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열등감 혹은 경쟁심,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우월주의, 그리고 약자에 대한 혐오가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르우벤은 달라진 듯 보입니다. 형제들이 배다른 동생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창세 37,21)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배다른 동생 벤야민을 걱정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제가 만일 벤야민을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제 손에 맡겨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창세 42,37)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자신의 아이까지 담보로 내어놓을 정도입니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창세 37,29-30)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르우벤은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곤 슬쩍 돌아와서는 서글퍼합니다. 울면서 걱정하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앞에 면목을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근이 들어 이집트에 곡식을 얻으러 가서, 형제들 서로가 이것은 요셉의 일로 췌값을 받는 것이라며 반성할 때, 르우벤은 ‘내가 그때 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창세 42,22).

또한, 벤야민을 자기 손에 맡겨달라고 자신의 두 아이의 목숨까지 담보로 내어놓았지만, 막상 이집트에서 벤야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나오고 그리하여 벤야민이 이집트에 발이 묶이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 나가 간청을 하는 것은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창세 44,1-34참조). 르우벤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우월감까지 가지면서, 반대로 상대방에는 배려나 존중이 없는 모습, 목소리 높여서 큰소리 뽐뽐거리다가도 막상 책임지지는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모습, 우리 안에 숨겨진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사람에게'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입주자 염00 미카엘

관광업을 운영하다가, 2017년에 초래된 중국의 사드 건으로 인하여, 한창 준비하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 급기야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험지를 경험한 때가 있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법정구속이 되어 몇십 년간 준비하여왔던 꿈과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바로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건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미사 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해성사 때, 신부님 앞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밖에서 나만 바라보고 계신 팔순의 노부모와 집안일 돌보느라 시집도 못 간 누이가 너무도 걱정되었다. 주님께만 오로지 의지하고 있을 가족들이 눈에 밟혀 신부님 앞에서 그냥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런 나를 그냥 말없이 안아주셨다. 그 이후로 오직 미사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오직 긴장으로 지내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출소 후 지내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해성사 시간에 신부님께 말씀을 올렸고 사회교정사목 위원회의 '평화의집'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출소 후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는 신부님께서 편안한 숙소를 마련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곳 평화의집으로 바로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 안에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에서 나는 당장이라도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듯하였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괜히 움츠러들고, 불안하고, 이곳을 드나들면서 이웃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갑자기 나의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올라 부르르 떨며 지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고비구나'라는 것이 나에게 엄습해오기 시작하였다. 어떤 때는 고박 일주일 동안을 온종일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안에만 있었던 적이 있었다. 또 다른 '감옥'이었던 것이다. 옥중에서 그렇게 찾고 바라던 주님을 막상 출소하고 나서는 당신 집안에서, 당신 앞에서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고 더 방황하고 헤맸던 것이었다. 다시 매달렸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길 곳은 주님의 품 안쪽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를 일으켜주소서.

예전에 내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었다. 주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해나가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끝까지 오래도록 잘해나갈게요. 더 큰 에너지와 복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오만이였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든지 가능할 줄 알았다. 자만이였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았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한낱 죄인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살아가는 종일뿐이었다. 주님께서 한순간에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었다. 주님께 무조건 엎드려 빌고 매달려야 했었다. 그래도 모자란 것은 올면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22일에 ‘카리타스 창업 준비센터’가 마련되어 그곳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를 내고 다시 관광여행업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는 데는 꽤 큰 용기가 필요하였다. 이미 무너진 신뢰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나에게 여행을 맡길 수 있을까... 하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은 내가 겪어야만 했던 것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낙담하지 않고 다시금 재기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본의 아니게 상처 드린 분들께 진심 어린 문자를 보내고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는 답문을 받았을 때, 마음이 환해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어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저 깊은 어느 곳에서 나에게 솟구치고 있었다. “그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어떻게든 살려주시는 거야! 매달려서 주님께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보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달리자!” 반드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열심히 뛰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비밀 언덕’이 생긴 것이었다. 이 비밀 언덕은 정말 내가 다시 재기하는 마음을 갖추는데 너무도 소중한 버팀목이며, 큰 산이 되어주었다. 나는 다시 꿈을 꾀다.

지금은 이 험난한 시기에 하루하루가 새롭고 감사한 나날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진실로 이렇게 변화하게 됨을 나는 감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결국,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은 결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들의 하나하나가 ‘은총’이며 ‘기적’이란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오늘 나에게 큰 산이 되어준 이 카리타스 창업 준비센터의 모든 관계자분께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나마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슴속에 끝까지 되새기며 놓지 않았던 이 말을 끝으로 이 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사람에게’
하늘에서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실 때는
먼저 심신을 힘들게 하시고
다음 마음을 심상케 하시고
다음 그 일을 쉽게 풀지 못하게 하신 후
그리고, 저 스스로 그 일을 푼 후에야,
천업을 내려주신다. 아멘.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중단되었던 월례미사가 7월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7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4/13~5/12)

2020년 4월~5월에는 이홍성 벨라벳타 자매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관련 사업 ●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소속인 타교구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의 구매와 작은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교정사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교구



▶ 느릅나무알로에로션 (250ml) ₩10,000 / 코코느릅알로에로션 (250ml) ₩11,000

- * 아토피, 피부 가려움, 피부 건조증 여드름 완화 효과
- * 항균효과-감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
- * 코코느릅알로에로션은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여 지속성 강화
- * 성분 : 알로에, 느릅나무, 글리세린, 라벤더 오일 / 코코넛 오일

▶ 수제 생강청, 레몬생강청 (350ml) ₩13,000 (원산지 : 제주 애월)

- *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비타민C 첨가) * 혈액 순환 및 수족 냉증 개선(찬 기운을 몰아냄)
- *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콜레스테롤 배출) * 성분 : 생강, 꿀설탕, 계피 / 레몬, 생강, 설탕



▶ 천연치약 (100g) ₩10,000

- * 미뢰세포(맛을 느끼게 하는 세포)를 건강하게 함 * 입안에 보습을 주어 침샘이 마르지 않음
- * 잇몸건강, 면역증강, 구내염, 황산화, 항균, 시린 이, 입 냄새 제거
- * 성분 : 천연 글리세린, 천연 계면활성제, 죽염, 녹차분말 등



※ 구입문의 :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042)635-1115 / 5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수익금은 전액 대전, 천안, 공주, 홍성교도소 법무병원 수용자, 출소자,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 ▶ 수제롤케이크 ₩10,000
- ▶ 수제청국장식빵 ₩5,000
- ▶ 수제단팥빵 3개 ₩5,000
-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 수제파운드케이크 ₩5,000
- ▶ 수제우유식빵 ₩4,000
- ▶ 흑미식빵 ₩5,000
-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 수제찰보리빵 20개 ₩10,000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안동교구

- ▶ 사과즙 1SET(2BOX) ₩50,000
- ▶ 힐데자연치약 (가루형) ₩10,000
- (튜브형) ₩12,000

※ (치약은 최소 3개 주문) 택배비 포함 금액입니다.

※ 구입문의 : 안동교구 교정사목 054)874-2396

※ 계좌번호 : 농협 737-01-082846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 수익금은 전액 안동교구 교정사목을 위해 사용됩니다.

대구대교구

대구대교구 교정사목에서 출소자들의 자활기관으로 운영하는 파스카 두부공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렵다고 합니다. 조그만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대구은행 065-05-703110-001 예금주: 파스카교화복지회